

# 한 지명직 최고위원 호남몫 '이상기류'

## 홍준표 대표 영남·충청권 배려 고려중 광주시당 "전국 정당 여행" 강력 반발

한나라당 홍준표 신임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에 호남 인사를 배려하지 않을 조짐을 보임에 따라 한나라당 내 호남 인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7일 한나라당 관계자에 따르면 홍 대표는 이르면 다음주 초 사무총장·비서실장·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와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선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해 당헌상에는 최고위원회 협의의 거쳐 당 대표가 지명토록 돼있다.

그동안 한나라당 지명직 최고위원은 일반적으로 당세가 약한 지역을 배려, 호남과 충청권 인사가 맡아온 것이 관례였다. 때문에

이번에도 호남과 충청권 인사들이 거론됐다.

하지만, 최근 홍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선정과 관련, 지역 배분보다는 계파 배분을 우선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한 호남권 인사는 이날 "최근 홍 대표를 만났는데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계 여부를 물어서 '이번 경선으로 계파 끝난 것 아니냐'고 답했더니 '친이·친박계에 한 자리씩 주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다른 인사도 "당 대표 주변에서 홍 대표가 약세 지역에 대한 배려 없이 지명직 최고위

원을 지명하려 한다는 소리가 들린다"며 "영남은 한나라당 최대 지분을 가진 대주주인데 선출직 최고위원이 5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롭게 선출된 최고위원 5명을 포함해 당연직인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7명의 최고위원 중 5명은 수도권 출신이고, 나머지 2명은 영남권 출신이다.

충청권의 경우 지명직 최고위원으로는 17대 의원을 지낸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정우택 전 충북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홍 사장은 경선 과정에서 최고위원을 보장받았다는 말이 돌리며 정 전 지사는 홍 대표와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호남 몫의 최고위원이 거론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한나라당 호남 인사들은 "친박계인 정 전 지사가 지명될 경우 나머지 한 자리는 영남권 친이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호남 인사들은 또 다른 가능성으로 홍 대표가 밀어붙이고 있는 측근인 김경권 의원(경남 김해갑)의 사무총장 카드가 다른 최고위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김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미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당 대표 주변의 기류는 호남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광주시당의 한 관계자는 "영남이 홍 대표에게 물표를 줬다고 농공행사를 하려한다"며 "그러나 그럴수록 다른 지역을 배려해야 하는 것이 전국 정당을 지향하는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지역여당 하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당정 "한·미FTA비준 8월 처리 강행"

## 민주 강력 반대...여야 충돌 가능성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하반기 정국의 '뇌관'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7일 여권에 따르면 황우여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지난 6일 입대회 대통령실장 초청 만찬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8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홍준표 신임 대표도 한미 FTA 비준동의의 조기 처리 입장이 확고하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한나라당 지도부가 '한미 FTA 비준동의의 8월 임시국회 처리'로 입장을 정리한 것은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상원의 FTA 소관 상임위원

재무위원회가 한미 FTA 이행방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 데 이어 하원의 세입위원회도 한미 FTA를 비롯한 3개 FTA의 모의 축소심의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이 한미 간의 이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협상'을 주장하며 8월 국회에서 비준안 상정조차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간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여야협 의체'를 통해 충분히 토론한 뒤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는 게 국의를 위한 길"이라며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도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며 "몸으로라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홍준표 대표 "등록금 완화문제 구조조정과 병행"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7일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 "존재 가치가 있는 사학만 국가가 지원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 MBC 라디오 '뉴스의 광장'에 잇따라 출연, "등록금 부담 완화 문제는 구조조정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등록금 장사만 하는 곳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안되므로 등록금의 일몰제 완화는 바른 정책이 아니다"며 "구조조정을 조속히 병행, 사학을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과활동 시 공천 배제' 발언에 대해 "당의 힘이 약화하고 국민 지지가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당내 계파 투쟁이며, 이는 한나라당 생존의 문제"라며 "같이 죽는 판에 계파 투쟁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홍 대표는 "박근혜 대선" 발언에 대한 당 일각의 반발에 대해 "박 전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게 객관적 수치로, (반발은)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우와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서도 "레토릭(수사)에 불과하며, 서민정책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중 평창서 고위정책회의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가 평창으로 결정된 7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김진표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 평창올림픽 지원 '쟁걸음'

## 양당 "초당적 협력" ...국회특위·지원특별법 추진

7일 여야는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됨에 따라 발 빠른 지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지원특위 구성 및 특별법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초당적 지원 체계'가 구축될지 주목된다.

국회 특위가 구성되면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평창을 비롯한 강원도 인프라 구축 예산 확보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당내에 강원도 발전 특위를 구성, 동계올림픽 개최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새벽 개최지 선정 직후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린 긴급 당정회의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에 대비

해 추가할 사회간접자본(SOC)은 무엇인지, 강원도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지 등을 강원도발전특위에서 논의하고 정부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오는 11일 강원도에서 순환국 대표와 최문순 강원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동계올림픽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서울 강남에서 평창까지 '50분 시대'를 열기 위한 수도권전철 강릉·평창 연장,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 제정, 알펜시아 관련 재정부실 대책 수립 등을 약속했다.

# 與 새 지도부 당직 인선 내홍 조짐

## 다음주 단행 앞두고 사무총장 등 최고위원들과 갈등

한나라당 새 지도부가 당직 인선을 놓고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홍준표 대표는 다음주 초계 당직 인선을 단행할 예정이지만 당 사무총장 등을 놓고 최고위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홍 대표는 당 사무총장에 재선의 김경권 의원, 제1사무부총장에 이종혁 의원을 영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 대책 차원에서 측근으로서 호흡이 잘 맞는 인사를 사무처의 수장으로 발탁할 것이라는

전언이다.

실제 김 의원과 이 의원은 홍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홍 대표는 또 남성 대변인으로 김기현 의원, 여성 대변인으로 정옥임 의원을 각각 내정했으며 비서실장에는 이범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고위원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내년 총선의 공천작업을 지휘할 사무총장에 홍 대표의 최측근 인사를 앉히는 것은 '계파 해체의 역행'이라는 지적이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 "공천 공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캠프 인사는 안 된다고 요구했고 홍 대표도 동의했다"면서 나경원·원희룡·남경필 최고위원도 같은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최고위원도 "핵심 당직 4자리(당 사무총장, 제1·2사무부총장, 여의도연구소장)에 캠프 인사는 안 된다"고 선을 그쳤다.

하지만, 홍 대표는 '김정권 사무총장 카드'에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 책임을 져야 하는 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인 사무총장을 '이러이러한 기준을 갖고 인선하라'고 요구하는 게 옳은지"라며 "대표를 압도적으로 뽑았으면 힘을 실어주는 게 옳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 비정규직 임금 인상 검토

## 與, 정규직과 격차 해소차원

한나라당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의 임금을 상당 수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홍준 정책위의장은 7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은 일을 할 경우 임금 차를 줄이는 등 차별을 시정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부의장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당장 임금을 똑같이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다만 예를 들어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조정하는 등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의 4대 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등 임금을 제외한 근로조건에서도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기로 했다.

###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H)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 대인동 소방서내편)

###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광산구 도천동 자연복지 매매**

- ▶신월IC 교통광장점 코너
- ▶면적:700평,1350평 분할가 광고효과 최고!!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화순 북면 수련원오양원.기도원 부지 매매**

- ▶임야:47000평, 단층건물:250평 (5동)
- ▶단지내 도로개설될 소나무, 산악초 재배단지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신안동 토지매매(상업지역)**

- ▶대 지: 250평(30x8코너)
- ▶가로32m, 세로26m (분할가능)
- ▶급 매: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공장(창고)급매**

- ▶대 지: 538평, 680평, 1000평
- ▶건 물: 300평, 200평, 200평
- ▶높 이: 8.9, 10.9m
- ▶호이스트: 유, 유, 유
- ▶매매가격: 협의후결정

문의: ☎ 016-644-4265, FAX.523-8558

### 나라공인중개사

**펜션텔 매도**

전북순창군 북흥면 대방리 펜션텔 2007년 준공

- 대 지: 10980㎡, 임야: 13937㎡
- 케모마일 23평형 3개동, 케모마일10평형17개동 관리동,1각각 독채형식 주차장완비, 수려한경치,수련원.기도원적합 여유대지매를계곡있음
- 매매가: 13억(근저당2억9천포함) • 실투자금: 11억1천

**모텔매도**

전라남도 여수시 울산면 월산리 • 대지: 1038㎡, 건물1096㎡

- 지하1층지상4층 객실: 29개 엘리베이터 있음 울출산단입구 2012 여수세계박람회 숙박업 지정업소
- 매매가: 10억(근저당3억6천대출승계가능) • 실투자금: 6억4천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문충동 한국아메리카우후문부근 코너

- 대 지: 262㎡ 제2종일반주거지역 원룸,빌라,점포형주택 적합
- 매매가: 1억5천만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일출동 북광주IC 부근 생산농지

- 대 지: 1425㎡ 투지적합 도로있음 영산강변 경치좋음
- 매매가: 2억2천5백만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일동초교부근

- 대 지: 210㎡ 제2종일반주거지역 코너 원룸,빌라 적합
- 매매가: 1억3천만

**과수원매매**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신진리

- 전,담: 9150㎡ 계획관리지역 배나무 15~20년생 2000주이상
- 대지가 높고 과일당도 아주 좋음
- 매매가: 1억3천5백만

**토지매매**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 공장용지및잡종지: 8480㎡ 공장부지: 3192㎡의 잡종지
- 담양목과방면2차선 도로옆 4차선도로 계획있음
- 매매가: 6억4천만

**대표전화 ☎511-6633**  
핸드폰: 010-6522-7731 FAX: 512-4589

# 전복장이 전문점 전복장터

양식장 직영도·소매  
활전복 전국택배 가능합니다.  
모든 메뉴 포장됩니다.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장이 전문점 전복장터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